

# 광복절에...한국당 또 '건국절·안보관' 시비

### 민주당 "건국절은 1919년 대북해법 국제사회가 지지"

### 한국당 "1948년 건국 자명 안보, 관찰자 전략 우려"

여야는 15일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아픔을 표시하면서도 현재의 안보 위기상황의 해법, 건국절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혔듯,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함으로써 보수야당의 '1948년 건국론'에 대해 선을 긋고, 나아가 친일잔재 청산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달래는 동시에 보수 야당의 안보 관련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안보 시스템이 강대국에 휘둘릴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새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지역과 세대간 분열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백지화를, 정의당은 초당적 여야정 협의회 구성을 각각 촉구하는 등 야당들은 저마다 다른 곳에 방점을 찍어 광복절에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순국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독립유공자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훈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며, 일제 부역자들과 친일의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건국 100주년을 불과 2년 앞둔 지금, 우리는 '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갈등과 반목으로는 새로운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당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48년 건국론' 주장 등



광복절에 모인 5당 대표. 여야 5당 대표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정치나 정쟁을 중단하고, 발전적인 비판과 협력을 통해 시대의 도전에 함께하자"고 요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정책과 정부 여당의 '1919년 건국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제2의 쿠바위기'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안보 위기에 계속 우왕좌왕한다면, 한국전쟁 이후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휴전협정이 체결됐던 '1953년 7월 27일'의 재언을 뒤집고 바라봐야 하는 관찰자로 전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해지고 있는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 그리고 지역과 세대를 가르는 분열이 계속된다면, 협치와 통합은 커녕 나라가 갈등과 대립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너무 당연한 1948년 건국을 경감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이라고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한일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전 정부 최대 실책이면서 역사상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인 위안부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일본 땅이라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위안부 합의 백지화, 독도 영유권 분

쟁 종결을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지금 역시 턱밑까지 북한 핵무기의 위험이 차오른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한반도의 미래 역사 앞에 선 우리가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심기일전해 나아가자"고 논평했다. /김형호기자 khh@

## 정부 "의원단 야스쿠니 참배 우려"

정부는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대금 납부 및 일본 여야 의원 수십 명의 신사 참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의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 다시 참배를 도둑질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들은 역사를 지시하면서 과거

사에 대한 반성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종전기념일(폐전일)인 이날 오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대리인인 시바야마 마사히코 총재특별보좌를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납부했다. 또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수십 명은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교육정책 이끌 '국가교육회의' 내달 출범

### 의장은 민간인...수능 절대평가 전환·특목고 폐지 등 논의

현 정부 초기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17일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의견수

렴 기간을 거쳐 9월에는 첫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에는 교육·학술·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자문과 부처간 또는 중앙정부·지방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과 1년 임기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은 최대 21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통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다. 의장은 당초 대통령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인이 맡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등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 등을 둘 예정이다.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교체제 개편이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만큼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등도 논의 대상이다.

고등교육 혁신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인재양성 방법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北 '괘 도발' 일단 멈춤

### "美 행태 지켜보겠다" 반응 살피며 단계적 압박 전망

'괘 포위사격'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이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일단 멈춤' 태도를 보여 국면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4일 전략군사령부에서 '괘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이 위협해 온 괘 포위사격이 당장 실행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그 동안 북한은 지난달 4일과 28일 각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다. 지난 8일에는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서로 미국의 예방전쟁에 전면적으로 맞서겠다고 했으며, 같은 날 전략군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로 괘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위협했다.

김기아 9일에는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이 4발의 '화성-12'를 괘 주변 30~40km 해상에 떨어뜨리겠다는 구체적인 타격 방안과 함께 8월 중순까지 김정은에 이를 보고하고 발사태세에 돌입하겠다는 일정까지 공개하며 긴장 지수를 더욱 높였다.

이런 북한의 잇단 위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껏 전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에 강하게 경고하는 등 미국이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서며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아 왔다. 일단 김정은의 이번 언급으로 한숨을 돌릴 시간은 마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은 괘 포위사격을 언급해 위기를 극대화하면서도 향후 일정을 공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속내를 보여준 것"이라며 "실제 발사가 이뤄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처럼 단계적 대응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 미국 등 주변국과의 협정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 일단 다시 공을 넘기고 압박을 가중하면서 향후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21일부터 율지프 리팀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는 만큼 미국에 대해 전략폭격기 B-1B나 핵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동업 경남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 측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재 상황을 방치한다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한 발씩 다가서며 압박과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李 총리 '막걸리 정치' 시동

### 오늘 정의당 지도부와 만찬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의당 지도부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막걸리 회동'에 재시동을 건다. 지난날 6일 국민의당 지도부와 만찬이 취소되고 나서 41일 만이다. 15일 정의당에 따르면 이 총리 초청 만찬에는 이정미 대표와 노화찬 원내대표, 심상정·윤소하·김종대·추혜선 의원까지 6명의 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한다. 윤소하·추혜선 의원은 전남 출신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정부 여당과 정의당의 공통 공약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는 뜻을 이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정의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자 증세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는 등 지금보다 더 과감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치우쳐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개진하려고 한다. 이 총리는 정의당 지도부에 '소통'과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정 협치를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지난 6월30일 야당 가운데 처음으로 바른정당 지도부를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고, 지난달 6일에는 국민의당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초청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 나오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당이 만찬을 취소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친안 병천면에 있는 유관순 열사 생가와 아우내장터를 돌아보며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돕는 일이 많이 발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늦었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를 더 많이 찾아내서 더 많이 현창(顯彰)하게 나타냄) 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점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담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기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담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점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점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점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함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